

연구방법론				번호: I - B - 9	
제 목	국문	예방의학회지 원저 저자들의 역할 분석			
	영문	Role of authors versus criteria for authorship in Kore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저 자 및 소 속	국문	조수현, 이영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문	Soo-Hun Cho, Young-Ju Le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분 야	보건관리 기타	발 표 자	조수현	발표형식	구 연
			일반회원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2003년 03월				
<p>1. 연구목적</p> <p>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는 것은 동료들에게 과학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문적 연구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과학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 업적에 뒤따르는 영예와 함께 논문 내용에 대한 일정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학회지 게재 원저 논문 저자에게는 합당한 역할이 요구된다. 예방의학회지에 게재된 원저 논문의 authorship을 평가하고자, 저자들로부터 수집한 역할을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에서 권고하는 저자기준(criteria for authorship)과 비교 검토하였다.</p> <p>2. 연구방법</p> <p>예방의학회지 제 32권 제 1호(1999년 3월)부터 제 35권 제 2호(2002년 5월)까지 게재된 총 188편의 원저 논문의 저자 953명 중, 단독 저자 논문 3편의 저자 3명과 외국인 저자 5명을 제외한 185편의 논문 저자 945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을 시행하였다. 책임저자와 제1저자에게는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저자의 역할 및 기여 정도에 대한 설문을 별도로 발송하였다.</p> <p>설문 조사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제목 및 저자들이 인쇄되어 있는 논문의 첫 페이지 사본, 저자의 역할에 대한 설문, 그리고 회신용 엽서를 동봉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은 ICMJE에서 권고하는 criteria for authorship에 따라 저자의 역할을 14개 항목으로 예시하였는데, 연구디자인, 자료의 수집, 자료의 분석과 해석, 초고(draft) 작성, 지적(知的)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 또는 개선, 연구비 확보에 대한 기여 정도는 3단계(++ , + , -)로 표시하도록 하였고, 재정적 또는 물질적 지원, 최종 원고에 동의, 논문지도 또는 심사, 기관/부서/학과의 장으로서 일반적인 지원 제공, 연구계획서 심사, 임상시험(진료) 참여 항목에서는 해당사항에 유무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 특기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p> <p>3. 연구결과</p> <p>예방의학회지에 게재된 원저논문 중 단독저자의 비율 및 논문 1편당 평균저자의 수는 '85년의 46.7 '90년의 8.1 '95년의 3.4%, 4.62명이었고, '99년-'02년은 1.6%, 5.07명(1명~18명)으로 단독저자 논문</p>					

문의 비율은 감소하고 논문 1편당 평균저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설문 대상 945명 중 437명(46.2%)으로부터 설문이 회수되었는데, 저자의 직위는 교수 339명(77.6%), 전공의, 연구원이 각각 26명(5.9%), 기관(부서)장 19명(4.3%), 전임의 17(3.9%) 순이었다.

저자들의 역할에서 연구디자인에 기여 86.9%, 자료수집 73.7%, 자료의 분석과 해석 81.7%, 초고작성 49.8%, 지적내용 개선 66.1%, 연구비 확보 35.9%, 재정적(물질적) 지원은 22.0%, 최종원고에 동의 83.3%, 논문지도 또는 심사 29.3%, 기관(부서)의 장 17.6%, 연구계획서 심사 24.5%, 임상시험 참여는 5.3%였다. ICMJE가 권고하는 저자기준에 부합되는 비율은 15.5%이었다

4. 고찰

예방의학회지 원저 논문의 평균 저자수는 1970년-1980년대에는 1.6-2.67명이었으나, 1995년 이후로는 4.5-5.5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들 저자들의 역할이 진정한 저자로서의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ICMJE의 저자기준과 비교하였다. 게재된 논문의 대다수 저자들이 지적(知的)기여(연구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 지적 내용의 수정, 원고작성, 최종원고에 동의 등)와 관련되는 개별 항목에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지만, 실제 ICMJE의 저자기준으로 권고하고 있는 ①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디자인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기여; ② 초고작성(drafting)과 지적(知的)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데 기여; ③ 최종 원고의 내용에 동의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자는 15.5%에 불과하였다. 이는 원저 논문의 저자 중 상당수는 저자로서의 역할보다는 contributor 또는 acknowledgement의 대상으로 기술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았는가를 시사한다 하겠다.

여러 분야에서 학회지 원저 논문게재를 다양한 용도의 평가 잣대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으나, 무엇보다도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자의 노력, 명성 그리고 책임을 고려한다면, 게재 논문에서 저자의 역할과 authorship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